

팹리스 업체 눈부신 도약

국내 주요 팹리스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도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 반도체 업계의 희망이 되고 있다. 자체 생산설비 없이도 반도체 설계 기술력만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내며 새로운 사업모델을 정착시키고 있는 팹리스 업체들. 2006년 1월, 팹리스 산업 동향을 살펴봤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내 팹리스 반도체 업계 매출액 규모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00억원 수준이었던 매출액 규모가 올해 1조 6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2005년 대비 77%가량 상승한 수치. 규모의 경제를 이뤄가는 국내 팹리스 기업들의 선전은 이 분야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동향 하나, 통신용 반도체로 영역 확대

국내 주요 팹리스 업체들의 급속한 성장이 눈에 띄는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기기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 세계 휴대폰 흐름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의 휴대폰 단말기에 특화시킨 반도체 제품을 개발해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DMB 단말기, PMP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 반도체 부품을 하나의 칩에 통합하는 한편, 위성과 지상파 DMB를 하나의 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듀얼칩 개발작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일본 ISDB-T 및 유럽 DVB-H 등 다양한 디지털 이동방송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올해부터 팹리스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동향 둘, 기업공개 활발

팹리스 업체의 기업공개에도 난류가 흐르고 있다. 티엘아이, 인티그런트테크놀로지스, 아이앤씨테크놀로지 등은 올해 중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지난해 타이밍컨트롤러 등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개발로 3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티엘아이(대표 김달수)는 미래에셋을 주간사로 선정하고 올 상반기 중에 코스닥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또 DMB용 반도체 개발업체인 인티그런트테크놀로지스(대표 고범규)와 아이앤씨테크놀로지(대표 박창일)도 각각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을 주간사로 선정하고 하반기 코스닥 등록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밖에도 토마토LSI(대표 최선호·홍순영)가 올해 후자 전환을 통해 2007년 기업공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업공개 러시에 힘입어 기존의 코스닥 상장기업 14개사와 최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픽셀플러스를 포함, 올해 국내 팹리스 업체 중 공개기업은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아로직

MAP(Multimedia Application Processor) 제품군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코아로직(대표 황기수)은 지난해 3분기까지의 매출이 1075억원으로, 2004년에 이어 2년 연속 매출 1000억원 클럽에 가입했다. 코아로직의 MAP가 사용된 삼성전자의 휴대폰 'D600'이 판매에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전망 역시 밝다.

엠텍비전

엠텍비전(대표 이성민)도 2년 연속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기존 주력제품인 CCP(휴대폰 카메라 기능 통제) 외에 CSP(고화소 이미지 처리), MMP(휴대폰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등 제품 다변화와 매출처 확대에 성공함으로써 지난해 1인당 매출이 8억원을 웃돌았다. 또 지난해 제품 누적 공급량이 1억개를 넘어선 것에 이어, 올해에는 CSP 매출 본격화에 힘을 얻어 2억개 달성도 가능하리란 전망이다. 올해 엠텍비전이 새롭게 구상한 전략은 '미션비전플랫폼(MVP)'이라는 신사업이다. 이를 통해 향후 로봇의 눈에 탑재되는 센서 및 교통통제, 산불예방, 산업보안 등에 두루 사용 가능한 이미징 반도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토마토LSI

토마토LSI(대표 최선호·홍순양)의 최근 성과 중 눈에 띄는 것은 2001년부터 시작된 소형 디스플레이 구동칩 출하량이 5600만개를 넘어선 것이다. 기존의 컬러·모노 STN LCD 구동칩과 더불어 QVGA급 TFT LCD 구동칩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거둔 성과이다. 올해 토마토LSI는 능동형 OLED 구동칩 부문에서 신규매출을 내는 등 흑자전환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픽셀플러스

지난해 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주목받은 픽셀플러스(대표 이서규)는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국내 팹리스 업체의 위상 강화에 힘을 예정이다. 또 초기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카메라모듈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CIS칩 사업부문을 더욱 강화해 순수 팹리스 반도체 사업을 전개하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칩스앤미디어

팹리스 반도체 업체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년간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친 후 첫 매출을 내고 2~3년 사이에 초고속성장을 이룬 사례가 많다. 따라서 지난해 첫 매출을 올린 칩스앤미디어(대표 임준호)가 올해 고속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MPEG4, H.264 등 차세대 동영상반도체 설계자신(IP) 사업을 펼치고 있는 칩스앤미디어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67억원 상당의 신규 매출을 내고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다. 올해에는 설계자산 부문에 이어 MPEG2 디코더 등 반도체 칩 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 등지에 지사를 설립하고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주목! 이 기술

엠텍비전은 국내 지상파 DMB와 위성DMB뿐 아니라 해외 DVB-H 방송까지 지원하는 DMB멀티미디어칩인 'MV8700'을 개발했다. 2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 캐나다 연구개발센터인 MTC(엠텍비전캐나다)와 공동개발한 결과이다. 이번에 개발된 신제품은 휴대폰에 저장된 각종 동영상과 정지영상을 TV로 연결해 시청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한글 MS워드 등 각종 문서를 빌프로젝터에 연결해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을 지원해 컴퓨터 없이 휴대폰을 통한 프레젠테이션까지 가능하다.

